

‘한명숙호’ 활동 돌입... 지역정치권 촉각

지도부 인선 등 당내 역학구도 변화 대응 골몰 “지역배려 힘들다” 舊민주주계·호남입지자 걱정

민주통합당 ‘한명숙호’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자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향후 이뤄질 지도부 구성 마무리와 공천혁신 작업, 야권연대 협상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주시하고 있다. 우선 광주·전남지역 일부 현역의원을 비롯해 많은 총선 입지자들은 경선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를 적극 지지해 현 체제를 받기는 분위기가...

하지만, 친노(친노무현)와 여성계의 약진, 호남세력의 부진 등으로 나타난 한명숙 체제의 향후 행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상황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명숙 체제가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지도부 인선 마무리. 4명의 지명지 최고위원 지명과 사무총장·정책위의장·비서실장·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인선해야 한다.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지명지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에서 최고의 사결정을 하는 역할을 하고 사무총장은 공천의 기초작업을 총 지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 입지자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당직이다.

이 과정에서 한명숙 대표를 지원했던 일부 국회의원은 경선전에서 세운 공로를 내

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더욱이 이들 지도부는 공천혁신을 통해 대폭적인 호남 물갈이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야권연대 과정에서 과감한 호남양보를 카드로 내세울 수도 있어 광주·전남지역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은 좌불안석이다.

전남지역 한 예비후보는 “한명숙 대표 체제가 현역 의원에게 또는 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잘 모르지만 통합진보당 세력에게는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공천권이 기득권을 배제한 가운데 공정한 방식으로 결정되고 나아가 야권연대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지역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려고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의원 ‘납세자권익상’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조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납세자연합회로부터 ‘제1회 납세자권익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납세자연합회는 16일 “저소득 납세자의 조세경감과 합리적 세제·세정 운용 등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이 의원을 입법 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합 없는 납세자들이 고통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이 법대로 세금 낼 수 있도록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성실한 납세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입법 활동을 해 왔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시상식은 17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통합 첫 최고위 미묘한 ‘신경전’

박지원 “DJ 정통성 훼손 안된다” 친노·시민사회세력 견제

새로이 출범한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첫 회의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에 따라, 4월 총선 공천 기준안 마련과 야권연대 등 추후 풀어야 할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지도부 내부에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과 이념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치를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데도 이 기준을 갖고 적용을 했다”며 “앞으로 민주통합당도 예외가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지도부 내의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 그룹에 대한 견제 의도가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호남세와 DJ계의 퇴조로 당내 역학구도가 사실상 친노 그룹과 시민사회세력에 무게 중심이 실리면서 김 전 대통령이 평생에 걸쳐 일궈 놓은 당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박 최고위원이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오는 18일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 19일 광주에서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 공식 일정에 포함시켰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오는 18일 경남 봉

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이후,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이후,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17일로 예정된 삼일고문단 오찬 견도 문제가 됐다. “주요 상임 고문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자 “삼일고문단 ‘주요’와 ‘보통’이 따로 있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주요 삼일고문이란 손학규 전 대표, 이해찬 전 총리,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내 주류 측 인사들을 거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 지도부의 첫 회의부터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면서 향후 당내 현안을 둘러싸고 구 민주계와 친노 세력, 시민사회 진영 인사들의 주장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상당한 논란과 갈등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4.11 총선 현장

박주선, 개성공단 방문 연기

민주통합당 박주선(광주 동구)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개성공단 방문일정을 1월 하순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남북 실무접촉이 16일과 17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남북경협을 보루인 개성공단을 방문해 대화의 창을 열어 그동안 막힌 남북경협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화해의 물꼬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병훈 “청년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민주통합당 이병훈 광주 동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을 지낸 이 후보는 이날 광주지역 대학생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 ‘발칙한 상상단’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을 지역 청년들의 취업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문화전당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과정에 참여한 지역 청년들에게 공개 채용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현, 광주 동구 무소속 출마 선언

박 현 전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16일 “안철수 열풍은 국민이 기존 정당의 해체를 명령하고, 새 세력 신당 창당을 갈망하는 것”이라며 “오는 4월 총선에서 금강정지, 계곡주의로 일목진 기존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무소속으로 광주 동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주의에 기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귀족정치·특권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중정치·시민정치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1차 정책간담회 개최

민주통합당 최경환 광주 북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6일 용봉동 선거사무소에서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1차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내 교수·교사, 어린이집 원장, 청소년 문화의 집, 마을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할 기관 통합문제와 함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원인과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위기 아이들의 실태와 해결방안, 작은도서관 운영과 필요성, 지역 아동센터 보육교사 및 복지사,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송재선, 광주 서구 갑 출마 선언

송재선 전 광주시의원은 16일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구현되도록 참신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광주 서구 갑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송 전 의원은 “광주에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철학이 반드시 필요한 때”라며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 일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평수, 순천 출마 선언

이평수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4·11일 19대 총선에서 순천시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견에서 “상식의 정치를 부활시키고 기부에 충실한 정치를 하겠다”며 “농업문제, 소외계층의 복지 교육, 남북문제 등 국가적 현안은 물론 특히 지역 현안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2년형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평종 위키 4월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황성산소를 얹어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농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감성적 지출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숙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리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옻나무 진액 참옻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옻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옻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가 좋다

▶에도 공합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조 주산지를 찾아 해매던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옻물을 만들었습니다.

▶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산삼추출물을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옻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온 생활을 휘림 참옻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